

중국 양축설화(梁祝說話)의 수용과 변용

박진태*

〈목 차〉

- | | |
|----------------------------|-----------------------------------|
| I. 머리말 | 1. 정치사회사적 측면에서 본 순절(殉節) 내지 순애(殉愛) |
| II. 양축설화의 형성과 변이과정 | 2. 민간신앙·부속신앙의 측면에서 본 원사와 해원 |
| III. 양축설화 발생의 정치사회적·문화적 배경 | 3. 남녀관계의 측면에서 본 비극적인 순애(純愛) |
| IV. 양축설화의 한국문학적 수용양상 | VI. 결 론 |
| V. 한국문학과 양축설화를 접맥시킨 동인 | |

I. 머리말

비교문학연구의 목표에 대해 방띠젬(Paul Van Tieghem)·까레(Jean-Marie Carré)·기야르(Marius-François Guyard) 같은 빠리학파는 '상이한 국민문학 상호간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헨리 레마크(Henry H. Remark) 같은 미국학파들은 '문학과 단수 또는 복수의 타 문학과와의 비교인 동시에 인간 표현의 타 영역과도 광범하게 비교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울리히 바이스슈타인(Ulich Weisstein)은 문학과 예술적인 인간표현의 분야에만 국한시켜 비교연구하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¹⁾

한편 조동일은 비교문학연구의 목표는 한국문학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세계문학의 보편적인 이론수립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이 논문은 2001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울리히 바이스슈타인; 이유영 옮김, 『비교문학론』, 홍성사, 1981, 13·35·181~200쪽 참조.

면서 영향관계의 논증을 비교문학의 과제로 삼으면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고, 비교문학이 문학 일반이론 개척에 기여하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²⁾

이처럼 비교문학의 역사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전파론적 비교연구에서, 동이점을 분석하는 병렬적이고 탈친숙적인 비교연구로, 그리고 보편이론을 추구하는 통문화적 비교연구로”³⁾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제각기 연구자들이 처한 자국문학의 특수한 상황과 시대적 조류에 연유해서 제기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동일한 문화권을 이루면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유럽에서는 필연적으로 영향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유럽문학에 종속된 미국문학의 경우에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발판으로 문화적·학문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유럽문학과의 주종관계를 대등관계로 재정립하려 했던 것이며, 지구촌시대에는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성과와 자신감을 토대로 서구적·백인우월주의적·기독교문화권중심적 세계문학사관에 도전하여 범지구적인 세계문학의 보편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비교문학 연구방법론의 역사를 교체·극복의 관계로 보고 이전의 방법론을 폄하하거나 폐기할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에 따라, 또는 연구 목적에 따라 적의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사실관계에 얽매이면 시야의 협소성을 벗어나기 어렵고, 세계화의 흐름에 탄력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지만, 영향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미시적인 고증작업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반론도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위에서 중국의 양산백·축영대설화의 한국문학적 수용과 변용에 대해

-
- 2)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9쪽.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해서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서울대학교출판부, 1993)과 카타르시스·라사·신명풀이』(지식산업사, 1997)에 이어서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지식산업사, 1999), 『공통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지식산업사, 1999),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지식산업사, 1999) 같은 연구물들을 내놓았다.
 - 3) 한국어문학회 제35회 전국발표대회(2001.10.27, 대구대학교)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한 나의 논문에 대해 임재해 교수가 토론한 유인물의 1쪽.

재분하기로 한다.

양축설화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는 김태준이 일찍이 『정사(情史)』와 『영파지(寧波志)』의 양축설화와 양산백전의 영향관계를 지적했고,⁴⁾ 박성의는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계승했으며,⁵⁾ 이명구는 양산백전은 『유세명언(喻世明言)』의 <이수경의결황정녀(李秀卿義結黃貞女)>를 번안하고 재생 이후의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⁶⁾ 정규복은 『선실지(宣室志)』와 『고금정사(古今情史)』 및 『고금소설(古今小說)』의 양축설화를 양산백전과 비교하여 양자의 이질성을 밝힘으로써 양산백전이 중국의 양축설화에서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구명하고, 나아가서 양산백전에서 함경도 지방의 무가가 파생된 것으로 추정했다.⁷⁾ 그러나 서대석은 소설과 서사무가의 관련성보다는 설화와 무가의 인접성을 중시했다. 그리고 제주도 서사무가 세경본풀이도 양축설화의 수용으로 보는 입장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양축설화와 유사한 제주도의 자청비설화도 주목하여 세경본풀이와 자청비설화는 주인공의 명칭과 전반부 플롯의 공통성으로 무관하지 않다고 보면서 다만 그 선후관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⁸⁾

따라서 양축설화의 한국문학적 수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축설화와 고전소설 양산백전·함경도 냇긋의 서사무가(2편)·제주도 채수긋의 세경본풀이·제주도의 자청비설화를 포괄하여 검토해야 하며, 장르간·작품간 상호관계가 구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양축설화가 형성되고 전승된 이유가 무엇이며, 한국문학에서는 어떠한 동인이 작용하여 설화·소설·서사무가에 걸쳐 접맥이 가능했는지도 구명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4) 김태준, 『조선소설사』(증보판), 학예사, 1939, 220~223쪽. 김태준이 말한 『정사』는 『고금정사』라는 문헌이다.

5) 박성의,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64, 436~442쪽.

6) 이명구, 「이조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대동문화연구』제5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1, 20~22쪽.

7) 정규복, 「양산백전고」, 『중국어연구』제4권,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79; 『한중문학비교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7, 198~219쪽.

8)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제8집, 국문학연구회, 1969, 106~107쪽 참조.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먼저 양축설화의 원천 연구로서 양축설화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를 비록 제한된 자료이지만 좀더 정밀하게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내의 다섯 작품과 양축설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 지역문화적·한국문학적 특징을 파악하고, 다섯 작품들 상호간의 친연성에 의거해 영향관계의 계보를 추정한다. 다음 특히 축영대의 죽음의 의미를 정치사회적·무속신앙적·남녀관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양축설화가 한국문학에 수용될 수 있는 보편성의 세계를 조명하기로 한다.

II. 양축설화의 형성과 변이과정

양축설화가 수록되어 있는 문헌으로 당대 중종(中宗, 683~684, 705~710) 때 양재언(梁裁言)이 찬술한 『십도사번지(十道四蕃志)』는 송대의 장진(張津)이 찬술한 『건도사명도경(乾道四明圖經)』을 통해서 알 수 있다.

義婦冢 卽梁山伯祝英臺同葬之地也。在縣西十星接待院之後 有廟存焉。舊記謂二人少嘗學，比及三年 而山伯初知英臺之爲女也。其樸質如此。按十道四蕃志云 義婦祝英臺與梁山伯同冢卽其事也⁹⁾

『건도사명도경』은 첫째로 의부층은 양산백과 축영대가 합장된 무덤이고, 둘째로 묘(廟)는 현의 서편에 있는 십성점대원의 뒤편에 있으며, 셋째로 두 사람이 젊어서 공부할 때 3년이 지나서야 양산백이 축영대가 여자임을 비로소 알았다는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십도사번지』는 그 세 가지 사실 중에서 의부 축영대가 양산백과 한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두 문헌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어 설화 이전의 실화단계에 해당한다.

설화적인 요소는 당대의 장독(張讀)이 찬술한 『선실지(宣室志)』와 청대에 저술된 『고금정사(古今情史)』에 기록되어 있는 양축설화에서 확

9) 路工 『梁祝故事說唱集』, 상해출판공사상서, 1955.4, 10쪽. 정규복, 앞의 책, 199쪽에서 재인용.

인된다.¹⁰⁾

(가) 英臺 上虞氏女 僞爲男裝游學 與會稽梁山伯者 同肄業 山伯字處仁 祝先歸 二年 山伯訪之 方知其爲女子 悵然有所失 告其父母求聘 而祝已定 馬氏子矣 山伯後爲鄞令病死 葬鄞城西 祝適馬氏 舟過墓所 風濤不能進 問知有山伯墓 祝登號慟 地忽自裂 陷祝氏 遂并埋焉 晉丞相謝安 奏表其墓曰 義婦冢(『宣室志』)

(나) 梁山伯祝英臺 皆東晉人 梁家會稽 祝家上虞 嘗同學 祝先歸 梁後過 上虞尋訪之 始知爲女 歸乃告父母 欲娶之 而祝已許馬氏子矣 梁悵然若有所 失 後三年 梁爲鄞令病且死 遺言葬清道山下 又明年 祝適馬氏 過其處風濤 大作 舟不能進 祝乃造塚塚 失聲哀慟 地忽裂 祝投而死 馬氏聞其事于朝 丞 相謝安請封爲義婦 和帝時梁復顯 靈異效勞 封爲義忠 有司立廟于鄞云 見寧 波志(『古今情史』)

위의 두 각편의 서사단락을 구분하여 대비시키면 다음과 같다.

- (선)① 상우(上虞)의 축영대가 남장을 하고 회계(會稽)의 양산백과 함께 공부했다. 양산백의 자(字)는 처인(處仁)이다.
- (고)① 상우의 축영대와 회계의 양산백은 동진(東晉)의 사람으로 함께 공부했다.
- (선)② 축영대가 먼저 집에 돌아갔다.
- (고)② 축영대가 먼저 집에 돌아갔다.
- (선)③ 2년 뒤에 양산백이 축영대를 방문하였을 때 그가 여자임을 처음 알고 크게 놀랐다.
- (고)③ 훗날 양산백이 상우를 지나다가 방문하여 비로소 그가 여자임을 알았다.
- (선)④ 그녀의 부모에게 고하여 장가들고자 했다.
- (고)④ 돌아갔다가 이내 부모에게 고하여 아내로 삼고자 했다.
- (선)⑤ 축영대가 이미 마씨(馬氏)와 정혼했다.
- (고)⑤ 축영대가 이미 마씨에게 허혼한 상태여서 양산백이 크게 실망했다.
- (선)⑥ 훗날 양산백이 은령(鄞令)이 되었을 때 병이 들어 죽으므로 은성(鄞城, 지금 절강성의 寧波 부근의 鄞縣)의 서편에 장사지냈다.

10) 원문은 조희용, 『고전소설문헌정보』, 집문당, 2000, 409쪽에서 재인용.

- (고)⑥ 3년 뒤에 양산백이 은령이 되었을 때 병이 들어 죽으면서 청도산(淸道山) 아래에 장사지내 달라고 유언했다.
- (선)⑦ 축영대가 마씨에게 시집갈 때 배가 묘소를 지나가게 되었다.
- (고)⑦ 그 이듬해에 축영대가 마씨에게 시집갈 때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 (선)⑧ 바람과 물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다. 양산백의 무덤을 물어서 알았다.
- (고)⑧ 바람과 물결이 크게 일어나 배가 나아갈 수 없었다.
- (선)⑨ 축영대가 올라가 목놓아 슬피 울며 애통해 했다.
- (고)⑨ 축영대가 양산백의 무덤에 가서 목놓아 울며 애통해 했다.
- (선)⑩ 땅이 갑자기 갈라지고 축영대가 마침내 함께 묻히었다.
- (고)⑩ 땅이 갑자기 갈라지고 축영대가 몸을 던져 죽었다.
- (선)⑪ 동진의 승상 사안(謝安)이 주청하여 그 무덤을 의부총이라 불러 표창했다.
- (고)⑪ 마씨가 조정에서 그 일을 듣고 승상 사안(謝安)에게 주청하여 의부(義婦)에 봉했다.
- (선)⑫ 없음
- (고)⑫ 화제(和帝) 때 양산백이 영이로운 효험을 나타내어 의충(義忠)에 봉하고, 유사(有司)에 명하여 영(郢, 지금 호북성의 江陵)¹¹⁾에 묘(廟)를 건립하게 했다.
- (선)⑬ 없음
- (고)⑬ 영파지(寧波志)를 보아라.

『선실지』와 『고금정사』의 각편들의 서사단락을 대비하면 대체로 대동소이하지만,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바 그 이유와 의미를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양산백의 무덤의 위치에 대해 『선실지』에서는 은성(鄞城, 지금 절강성의 寧波 부근의 鄞縣)의 서편이라고 하고, 『고금정사』에서는 청도산 아래라고 하여 상이한 것 같지만, 양자를 종합하면 ‘은성의 서편에 있는 청도산 아래’가 된다. 다음으로 축영대가 함몰하는 대목도 『선실지』는 양산백의 무덤이 갈라지는 이변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결과적

11) 영(郢)은 춘추시대에 초나라의 도읍이었다가 오나라에 함락된 곳이어서 오나라와 속적관계였던 월(越)나라 지역의 양산백의 묘우를 건립하여 민심을 회유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으로 축영대가 무덤 속에 양산백과 함께 파묻혔다고 말한 데 비해 『고금정사』는 축영대가 자진해서 무덤 속으로 투신해서 죽은 것으로 말하여, 양산백에 대한 축영대의 사모의 정을 강조했다. 그리고 『선실지』는 조정에서 축영대를 의부로 포창한 일을 승상 사안이 주도한 것으로 말하는 데 반해서 『고금정사』는 조정에 있던 마씨가 승상 사안에게 건의한 것으로 말하여 마씨가 조정에서 근무하던 관료인 사실을 알려준다. 끝으로 『고금정사』는 『선실지』에 없는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 바 동진(317~420)이 멸망하고도 80여 년이 지난 제나라 화제(501~502) 때 양산백을 의총으로 봉하고, 영(郢; 지금의 호북성 江陵)에 묘우를 건립한 사실을 덧붙여 알려주어, 양축전승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축영대에서 양산백 쪽으로 비중이 이동했으며, 전승권 내지 신앙권도 크게 확대된 저간의 변화를 간파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선실지』와 『고금정사』는 당대(618~907)와 청대(1616~1912)의 시간차가 크지만, 대응되는 서사단락들은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다만 『선실지』에 없는 사실들이 『고금정사』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금정사』의 전거가 된 영파지방의 향토지인 『영파지』는 『선실지』와는 계보를 달리하는 문헌을 참고로 한 것 같다.

명대의 풍몽룡(馮夢龍)이 저술한 『고금소설(古今小說)』에 기재되어 있는 양축설화¹²⁾는 풍몽룡이 당인(唐人)의 소설을 전거로 하였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선도사변지』나 『선실지』에 수록되어 있는 양축설화를 전거로 하여 부연 윤색하여 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¹³⁾ 몇 가지 중요한 변개가 일어났다.

첫째 축영대가 상우인(上虞人)에서 상주(常州) 의흥인으로, 양산백은 회계인(會稽人)에서 소주인(蘇州人)으로 바뀌었다. 전승권이 확대되면서 절강성의 회계(현재의 紹興)와 상우에서 강소성의 상주와 소주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지역적 전설에서 이주적 전설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12) 馮夢龍, 『古今小說』(하), 대만; 世界書局, 제20권 李秀卿義結黃貞女. 정규복, 앞의 책, 201쪽의 원문 참조.

13) 같은 책, 같은 곳에 “據唐人小說有個朴蘭女子……又有個女子叫做祝英臺”라는 기록이 있다. 정규복, 앞의 책, 201쪽의 각주(12) 참조.

수 있다.

둘째로 보호자가 부모에서 오빠와 을케로 바뀌었다. 부모의 감독권과 결정권이 오빠 부부에게 위임된 것인데, 오빠의 통제를 거부하는 축영대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부각시켜 남장하고 유학하는 행동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셋째로 축영대가 집을 떠날 때 석류가지를 꺾어 정절을 지킬 것을 하늘에 맹세한다. 축영대의 정절의식을 강조하여 양산백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는 데 성공할 것을 예고하는 삽화이다.

넷째로 마씨가 조정의 관료에서 안락부(安樂府)의 부자로 바뀌어 신분갈등보다는 빈부갈등을 부각시켰다.

다섯째 양산백이 상사병에 걸려 죽으면서 부모에게 안락부 어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축영대의 신행길에 양산백의 혼령이 나타나 자신의 무덤을 돌아보아 달라고 요구한다. 축영대의 신행길이 수로에서 육로로 바뀐 것이다.

여섯째 축영대가 무덤이 갈라진 속으로 뛰어들고, 사람들이 붙잡는 바람에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 나비로 변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붉은 것은 양산백의 정령이고, 검은 것은 축영대의 정령이라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의부충과 묘우의 유래를 밝히는 전설에서 검은 나비와 붉은 나비의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로 바뀌었다. 그러나 검은 나비와 붉은 나비가 특정 지역을 벗어나 나비의 종(種) 전체를 가리킨다면 양축설화는 이미 민담의 범주에 들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양축설화는 『심도사번지』와 『전도사명도경』의 실화에서 『선실지』와 『고금정사』의 지역적 전설·역사적 전설·의부충전설로 발전하였다가 『고금소설』의 이주적 전설·설명적 전설·나비유래전설로 변모하였거나, 또는 민담화의 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양축설화 발생의 정치사회적·문화적 배경

중국 고대사회에서 상주(商周)와 춘추시대를 비롯해서 전국시대의 국가권력과 사회질서는 '희생의례와 전쟁이라는 인가 받은 폭력(sanctioned violence)'에 근거하고 있었기¹⁴⁾ 때문에 경쟁과 전쟁 대신 평화와 질서를 담보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자백가가 출현했다. 그러나 제자백가 사상가들은 무질서를 종식시키지 못했고, 유교는 한대(漢代)에 가서야 관료가 익혀야 할 국가이념으로 채택되었는데, 진대(秦代)의 법가(法家)와 혼합되어 국가유교(Imperial Confucianism)의 성격을 띠으로써 공자와 맹자의 본래적인 가르침이나 송대(宋代)에 발전한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신유학(성리학)과는 구별된다. 하여튼 한대부터 유교사상이 국가권력과 사회질서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는데, 그 중에서 사회조직에 대한 유교의 이론적 토대는 우주질서와 상하우열의 계층관계였기 때문에 통치자는 피통치자보다 우월하고 [君爲臣綱],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고 [夫爲婦綱], 부모는 자식보다 우월한 [父爲子綱] 존재라고 여겼다.

동진(東晉, 317~420)이 건강(建康, 지금의 南京)에 도읍을 정하고 남북조 시대를 열음에 따라 정치·경제·군사·문화의 중심이 화북에서 화남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방 사대부들이 국가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학문과 교육에 새로운 기풍이 진작되었을 텐데, 회계와 상우의 양산백과 축영대가 유학을 한 사실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더욱이 양산백이 은현(鄆縣)의 현령이 되었으니, 유가적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물론 위진 남북조 시대의 지식인들은 전쟁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노장사상(老莊思想)에 심취하였고, 불교의 윤회사상과 인과응보설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찾았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유선시(遊仙詩) 같은 현언시(玄言詩)가, 산문에서는 신선과 귀괴(鬼怪)에 관

14) 존 킹 페어뱅크; 중국사연구회 번역, 『신중국사』, 까치, 1996, 67쪽 참조.

한 지괴소설(志怪小說)이 성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연명(365~427)은 자연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였으며, 잡다한 인간사를 기록한 지인소설(志人小說)도 유행했다.¹⁵⁾

특히 산문에서 지괴소설은 유교적인 현세주의와 인본주의의 울타리를 벗어나 신선과 귀신의 세계까지 상상력을 확장시켜 당대(唐代)의 전괴소설(傳奇小說)에 영향을 끼친 데 반해서 지인소설은 실존인물의 일화를 기록하여 공자의 '기술하되 창작하지 않는다(述而不作)'의 문학관에 보다 가까운 기술태도와 사상적 지향성을 보였다.

이처럼 위진 남북조 시대는 지식인들이 한대의 국가유교에 회의를 품고 도교사상과 불교사상에 경도되었던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유교사상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도연명의 생애와 문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관직에 있을 때에는 유가였지만, 관직을 떠나면 도가가 되었던' 중국 지식인의 사상적 양면성을 염두에 두고서 양축설화의 양산백과 축영대의 행동양태를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축영대가 남장(男裝)을 하고 집을 떠나 유학한 것은 유가적인 입신양명 사상을 내면화한 행동이고, 부모의 정혼에 순종해서 마씨와 결혼하려 한 것은 남성이 지배하는 가족주의에 토대를 둔 유교적 질서에 순응한 행동이다.¹⁶⁾ 그리고 비록 후대에 윤색되고 부연된 양축설화이지만, 『고금소설』에서 유학을 만류하는 울케에게 석류가지를 꺾어 화대(花臺)에 꽂고서 '명예와 정절을 지키면 나뭇가지에 잎이 무성하고 꽃이 만발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고 가문을 욕보이면 말라죽을 것이다'고 하늘을 향해 서원을 말한 것도 유가적 가문의식과 정절관념의 발로라 할 수 있다.

15)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1990, 163~225쪽에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학을 개관한 것을 참조했음.

16) 『선실지』와 『고금정사』에는 양산백이 축영대가 여자인 사실을 알고서 그녀의 부모에게 청혼을 했으나, 축영대가 이미 마씨와 혼인을 허락한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어, 축영대의 혼인에 대해서 그녀의 부모가 결정권이 있음을 시사한다. 『고금소설』에서는 축영대의 부모 대신 오빠와 울케가 축영대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마씨가 축영대의 오빠에게 청혼을 넣어 허락을 받음으로써 축영대 혼인에 관한 결정권을 축영대가 아니고 오빠가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양산백도 유학하여 은령(鄞令)에 부임하였으니, 유가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동문수학하던 축영대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정’이 ‘연정’으로 변하여 친구 또는 의형제¹⁷⁾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발전시키려 한 것도 유가적인 의리와 지조를 실천하고 완성시키려 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양산백이 상사병에 걸려 죽는다거나 축영대가 양산백의 무덤에서 통곡한 것은 유가적인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슬퍼하되 상심하지 말라(哀而不傷)’와 같이 중용을 강조하는 유가적인 생활신조가 무너지면서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은 무교(巫敎)나 도교나 불교의 원리에 의해서만 위로와 치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십도사번지』에서 ‘동총(同塚)’이라 했고, 『진도사명도경』에서 ‘동장(同葬)’이라 했듯이 양산백의 죽음에 이어서 축영대가 죽었을 때 두 사람을 ‘합장(合葬)’하고서, 그 무덤을 의부총(義婦塚)이라 불렀고, 묘(廟)를 건립하여 제사를 지낸 사실을, 열녀각(烈女閣)을 지어 표창하고, 순절한 충신을 위해 사당(祠堂)이나 묘우(廟宇)를 건립하여 제사를 지내는 유교적 풍습으로만 볼 수는 없다.

축영대의 신행 행렬이 수로로 양산백의 무덤 근처를 지나갈 때 거센 풍랑으로 배가 나아갈 수 없었다는 『선실지』와 『고금정사』의 기록¹⁸⁾은 민간신앙적·무교신앙적인 원혼관념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축설화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성행했던 지괴소설(志怪小說)과 맥락을 함께 한다.

하여튼 양축설화는 유교가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기본원리로 작용한 결과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가족주의’가 정착한 향촌사회에서 ‘개인적으로’¹⁹⁾ ‘절의(節義)를 중시하는 유교이념’을 실천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적인 내용의 실화가 일차적으로 원혼설화로 변개하

17) 『고금소설』에서는 결의형제(結義兄弟)를 하였다.

18) 『고금소설』에서는 축영대의 신행길이 육로로 얘기된다. 곧 양산백이 신랑이 사는 마을의 어귀에 장사지내 달라고 유언하고, 축영대의 신행 행렬이 이르렀을 때 광풍이 불고 천지가 암흑세계로 변한 가운데 양산백의 혼령이 나타나 옛 정(情誼)을 잊지 말고 가마에서 내려 자신의 무덤을 한번 둘러보라고 간청한다.

19) 고려의 최영이나 정몽주, 조선의 사육신이 국가나 왕에 대한 절의를 지키려 한 것과는 구별되는 ‘사적(私的)인’ 차원이라는 뜻이다.

고, 이차적으로 『고금소설』처럼 불교적인 윤회사상에 의거해 양산백은 붉은 나비로, 축영대는 검은 나비로 환생하는 화접화소(化蝶話素)가 첨가되거나, <신각양산백축영대부부공서환혼기(新刻梁山伯祝英臺夫婦攻書還魂記)>나 <신각동창양산백환혼중정인연전(新刻同窓梁山伯還魂重整姻緣傳)>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환혼화소(還魂話素)가 첨가되어 소설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원대의 잡극을 포함해서 양축전승이 '실화 → 설화 → 잡극·전기소설'로 변모하고 개작된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있어야겠다.

여기서는 양산백과 축영대의 비극적인 사랑이 동진시대(東晉時代)의 어떠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 속에서 발생했을까 하는 궁금증에 대해 유교적 시각에서 접근해본 것으로 그친다. 다만 양산백이라는 개인의 이상추구와 좌절을 통해 유교문화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국가유교의 희생자였던 민중사회는 양산백의 원혼에서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느끼고 원혼설화를 형성시켰고, 지배권력은 치자적(治者的) 입장에서 양산백과 축영대의 원혼을 충효열(忠孝烈)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정략적으로 또는 민심수습 차원에서 이용했을 것이란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다. 특히 후자와 같은 개연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IV. 양축설화의 한국문학적 수용양상

양축설화와 직접·간접으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문학 작품으로 그 동안 학계에서 거론된 함경도의 서사무가 문굿과 '치원대·양산북', 고전소설 양산백전, 제주도의 자청비설화와 세경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양축설화의 그것으로 하여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굿²⁰⁾

- ① 양산백과 추양대는 8살 때 은하사 절에 가서 함께 글공부를 했다.(선1)²¹⁾

20) 임석재·장주근, 『판북무가』(무형문화재지정 조사보고서), 1965, 137~148쪽의 자료 참조.

- ② 양산백이 16살, 추양대가 15살 때 한강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혈수(血水)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양산백이 추양대가 여자임을 알았다.(선3)
- ③ 양산백이 청혼하였으나, 추양대는 부모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고 집으로 갔다.(선2)
- ④ 추양대가 부모에게 양산백의 청혼을 말하였으나 거절당했다.(선4#)
- ⑤ 추양대가 다른 가문에 허혼했다.(선5)
- ⑥ 양산백이 놀라 죽으면서 추양대의 신행길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선6)
- ⑦ 추양대가 양산백의 무덤을 지나갈 때 가마에서 내려 무덤으로 갔다.(선7)
- ⑧ 금봉채로 무덤을 치니 갈라지고 추양대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선10)
- ⑨ 무덤이 다시 합쳐지고 밖으로 나온 추양대의 나삼자락을 떼어내니 푸른 나비, 붉은 나비, 흰나비로 변했다.(선11#)

(2) 치원대 · 양산복²⁸⁾

- ① 김정승 부인과 이정승 부인이 빨래를 하는데 배(梨)가 떠내려와 이를 반반씩 쪼개 먹었다.
- ② 김정승 부인은 양산복을 낳고 이정승 부인은 치원대를 낳았다.
- ③ 치원대는 남장을 하고 금상절에서 양산복과 함께 공부를 했다.(선1)
- ④ 양산복은 치원대가 여자로 의심되어 해수욕과 소피로 시험하여 보았으나 실패하고 동침할 때 젓가슴을 만져보고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다.(선3)
- ⑤ 양산복이 먼저 공부 도중에 집에 내려갔다.(선2#)
- ⑥ 양산복이 상사병으로 죽으면서 치원대의 신행길에 묻어 달라고 유언했다.(선6)
- ⑦ 치원대가 신행길에 양산복 무덤을 지나갈 때 소피를 이유로 가마를 세우고 내렸다.(선7)
- ⑧ 치원대가 양산복의 무덤을 금봉채(金鳳釵)로 치니 갈라지므로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선10)
- ⑨ 신랑이 치마를 붙잡았으나 허사였다.
- ⑩ 양산복과 치원대가 쌍무지개가 되어 하늘로 승천했다.(선11#)

21) 설화 형태로 가장 오래됐고 초창기 원형을 잘 보여준다고 판단되는 『선실지』의 양축설화를 대비의 기준으로 삼는다. (선1)은 『선실지』의 양축설화의 첫 번째 서사 단락이라는 뜻이다. 이하 같은 요령에 의한다.
 22) 김태곤 편,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9, 98~101쪽의 자료 참조.

(3) 자청비설화²³⁾

- ① 문도령이 장안으로 공부하러 가므로 자청비가 오빠의 옷으로 남장하고 동행했다.(선1)
- ② 문도령이 자청비가 여자로 의심되어 활쏘기, 소피 시합을 했으나 졌다.(선3)
- ③ 자청비가 무도령과 침식을 같이 하는데, 밤에 물동이를 가운데에 놓고 잤다.(선3)
- ④ 문도령의 집에서 혼인을 이유로 불러 자청비와 함께 하행했다.(선2#)
- ⑤ 처음 만난 시냇물에서 자청비는 상류에서, 문도령은 하류에서 목욕을 하는데, 자청비가 버들잎에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귀가했다.(선3)
- ⑥ 문도령이 집에 와서 부모의 정혼에 맞섰다.
- ⑦ 자청비도 부모가 강제로 혼인시키려 했다.(선5)
- ⑧ 문도령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선6)
- ⑨ 자청비가 신행길에서 소피보겠다고 속이고 가마를 멈추었다.(선7)
- ⑩ 무덤이 갈라지고 자청비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선10)
- ⑪ 신랑이 불잡자 자청비가 저주를 하여 찢어진 치맛자락이 모기와 파리가 되었다.(선11#)

(4) 세경본풀이²⁴⁾

- ① 자청비가 열 다섯 살 때 남장하고 하늘나라 문곡성 [文曲星] 의 아들 문도령을 따라 글공부하러 갔다.(선1)
- ② 자청비가 밤에 물대야에 젓가락을 올려놓고 잤다.(선3#)
- ③ 자청비보다 글공부가 뒤진 문도령이 소피시합을 했으나 졌다.

23)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63~69쪽의 자료 참조.

2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건』, 신구문화사, 1980, 315~330쪽까지만 정리한다. 세경본풀이의 뒷부분은 363쪽까지 이어진다.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 『국어국문학』 제96호, 국어국문학회, 1986, 286~290쪽에서 세경본풀이의 서사 단락을 나누고 이본적 차이를 대비한 적이 있는데, ① 주인공의 혈통과 출생, ② 문도령과의 만남과 결연, ③ 문도령과의 이별, ④ 문도령을 기다리다 정수남의 꿈에 빠지고, 정수남을 죽이게 됨, ⑤ 집에서 쫓겨남, ⑥ 청태국 마귀할망의 양육을 받음, ⑦ 마귀할망에게서 쫓겨나 죽이 됨, ⑧ 문도령과의 재회, ⑨ 시험을 통과하고 떠느리로 인정, ⑩ 하늘나라의 전쟁에 출전하여 공을 세우고 상을 받음, ⑪ 남편의 죽음, ⑫ 서천꽃밭으로 가 환생꽃을 구함, ⑬ 죽은 남편을 환생꽃으로 살려냄, ⑭ 점으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 ⑮ 남편이 돌아오나 자청비는 화가 나서 시아 버지게 하소연함, ⑯ 증세경의 신직과 오곡씨를 받음, ⑰ 환생꽃으로 정수남을 살려냄, ⑱ 세경신으로 좌정함과 같이 구분했다.

- ④ 3년 뒤에 하늘에서 혼인을 이유로 문도령을 불렀다.(선2#)
- ⑤ 자청비가 문도령과 위아래 물통에서 목욕하며 버들잎에 자신이 여자임을 밝혔다.(선3)
- ⑥ 자청비가 문도령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 하룻밤을 동침한다.
- ⑦ 문도령이 하늘로 올라가며 박씨를 주고 갔다.(선6#)

(5) 양산백전²⁵⁾

- ① 옥황상제에게 득죄하여 적강한 양산백이 10살 때, 추양대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입신양명(立身揚名)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14살 때 운향사(雲香寺)로 공부하러 가서 결의형제(結義兄弟)를 했다.(선1)
- ② 양산백은 추양대가 여자로 의심되어 소피의 방법으로 시험했다가 잠자는 추양대의 설부(雪膚)를 보고 비로소 여자임을 확인했다.(선3)
- ③ 양산백은 추양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추양대는 후일을 기약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선2)
- ④ 양산백은 홀로 공부하다가 추양대를 만나기 위해 평강땅으로 떠났다.(선4)
- ⑤ 추양대가 명망있는 심상서(沈尙書)의 아들 의랑과 정혼한 것을 듣고 실의에 빠졌다.(선5)
- ⑥ 집에 돌아온 양산백은 상사병에 걸렸다.(선6)
- ⑦ 양상서(梁尙書)는 추양대의 집을 찾았으나, 추양대와 심의랑의 결혼식이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선5)
- ⑧ 양산백은 병이 깊어져 추양대에게 주는 편지를 쓰고, 사후 추양대의 신행길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선6)
- ⑨ 추양대는 신행길에서 양산백의 편지를 읽고, 그의 무덤에 가서 제문(祭文)을 읽었다.(선7,9)
- ⑩ 무덤이 갈라지고, 그녀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선10)
- ⑪ 심의랑이 무덤을 갈라놓았으나 칠푼뽕이 뺨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천연(天緣)을 인정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선11#)
- ⑫ 양산백과 추양대는 옥황상제의 은총으로 무덤이 갈라지는 가운데 재생했다.(선11#)
- ⑬ 양산백과 추양대는 다시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다.

25) 『구황자본 고소설전집』(26),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원, 1284, 411~463쪽에 수록된 작품을 참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설화·서사무가·고전소설의 서사단락을 중국 양축설화의 그것과 대비해 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 발견된다. 첫 번째가 양산백의 원혼이 해코지하는 대목이 어느 장르를 막론하고 제거되었다는 사실이다. 원혼이 파괴력을 발휘하여 산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품게 하고 해원시켜 달라고 요청할 때 일반적으로 가뭄과 질병 같은 자연적 재앙을 일으키지만, 양산백은 축영대가 배를 타고 신랑한테 가기 때문에 풍랑으로 그녀의 길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양축설화를 수용한 우리 나라의 서사체들은 양산백의 원혼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왜 이러한 변이가 일어났을까? 신행길이 수로에서 육지로 바뀌었기 때문일까? 그러나 중국의 『고금소설』에서는 신행길이 육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백이 나타나 자신의 무덤을 찾아달라고 요청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원혼설화를 보면, 아랑전설·춘향전설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여자의 원혼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최영,²⁶⁾ 단종, 금성대군, 사도세자처럼 남성의 원혼을 신격화하여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것도 젊은 각시의 카리스마가 더 강력한 것으로 믿어졌다. 따라서 양축설화의 수용과정에서 양산백의 원혼이 카리스마를 보이는 대목이 탈락한 이유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양산백이 축영대가 여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이 달라졌다. 양축설화에서 축영대의 남장과 남자 행세가 완벽해서 양산백이 축영대의 집을 방문했을 때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서사무가와 고전소설은 동문수학할 때 여성임을 확인하고, 제주도 설화와 무가에서는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자신의

26)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경기도 고양군 대자산에 있던 최영의 무덤에 풀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최영이 죽으면서 결백을 주장하여 자기의 말이 거짓이면 풀이 나고 참말이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의 무덤이 적분(赤墳)이었다는 사실은 최영의 죽음이 억울해서 원한이 맺힌 걸 의미한다.

정체를 밝힌다.

축영대의 남장은 여성의 공적 활동이 금지된 남성중심의 유교적 질서의 사회에서 여성의 본원적이고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기 위한 도전행위이기²⁷⁾ 때문에 여성이라는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남성중심질서에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⁸⁾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여성이라는 신분이 밝혀진 이후에도 천상에 올라가 문도령과 결혼하고 전쟁에서 무공을 세우고 농경신으로 제주도에 좌정하고, 나머지 작품들은 양산백(또는 문도령)의 배우자가 되는 길을 걷는다. 다시 말해서 세경본풀이만 여성이 남성과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서사체에서는 모두 남성중심질서의 세계에서 여성의 자아실현의 의지와 꿈이 좌절되고 희생되는 내용이다.

세 번째로 원혼의 해원방식의 문제이다. 무속신앙에서는 자연사가 아닌 비명횡사를 하거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요절한 경우 모두 부정한 죽음이고, 한이 맺힌 원혼이 되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떠도는 것으로 믿는다. 그리하여 씻김굿이나 고풀이나 배가름 같은 상징의례를 통해서 부정을 정화시키며, 맺힌 한을 풀어주고, 막힌 저승길과 닫힌 저승문을 열어줌으로써 원혼을 부정·악·속박에서 정·선·자유의 상태로 전환시키고 조상으로 재생시키는데,²⁹⁾ 이러한 녀굿(死靈祭)의 ‘한의 맺힘과 풀림’의 구조를 서사체에 대응시키면,³⁰⁾ 양산백(또는 문도령)의 죽음은 ‘한의 맺힘’이고, 축영대(또는 자청비)가 죽어서 양산백(또는 문도령)과 결합하는 것은 한을 풀어주는 해원의 의

27) 정병현·이우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269쪽 참조.

28) 조선시대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식의 실현양상을 보면, 첫째로 여성이 남성을 대리인으로 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박씨부인전·금방울전·신유복전·황부인전, 둘째는 남장하여 공적인 영역에 진출하였다가 정체가 탄로난 이후에는 가정에 복귀하는 김희경전·이대봉전·옥주호전·황장군전·이봉빈전, 셋째는 정체가 탄로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적인 활동을 하고 이전에 획득한 지위를 유지하는 흥대원전·정수정전·방한림전·이학사전 등이 있다. 같은 책, 293~294쪽 참조.

29) 최길성,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0, 272~286쪽 참조.

30) 한의 맺힘과 풀림을 한국문학의 대표적인 서사구조로 접근한 작업의 결과(김영규·최시한·양희철·강은해의 논문 4편)가 김영규 편, 『한국문학의 두 문제-원한과 가계-』, 학연사, 1985, 15~116쪽에 수록되어 있다.

미와 기능을 지닌다. 그뿐만 아니라 양축설화처럼 의부로 포창하거나, 의총으로 봉하거나,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의례화된 해원 행위이며, 나비로 환생하거나 쌍무지개로 전생(轉生)하여 승천하는 것도 남녀의 두 원혼이 해원되어 극락천도(極樂薦度)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양축설화·함경도 서사무가·제주도의 자청비설화는 사후결합에 의해 해원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양산백전은 사후결합했다가 옥황상제의 은총으로 부부가 재생하고 양산백이 입신양명하다가 승천하는 적강소설로 창조되었다. 이처럼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행복한 결말로 종결짓는 서사적 반전현상에 대해 김열규는 민담의 구조에 기반을 둔 ‘반대에 의한 발전’으로,³¹⁾ 정규복은 유교의 감계주의(鑑戒主義)에 기인하는 것으로,³²⁾ 서대석은 “한국인의 의식에 내재된 원령 작해(作害)로 인한 공포감과 그 공포감에서 유래된 원한 기피의 사고에서 형성된 현상”³³⁾으로, 성현경은 행복으로 시작해서 불행을 거쳐 다시 행복으로 되돌아가는 한국인의 원음의식(圓融意識)을 바탕으로 한 변용으로³⁴⁾ 파악했다.

반면에 세경본풀이는 문도령이 정혼하려 할 때 자청비가 천상계에 올라가 시험을 통과하여 문도령과 결연단 뒤 전쟁에 출전하여 무용을 떨치고, 환생화(還生花)를 구해와서 죽은 문도령을 회생시키고, 세경신(농경신)의 신직을 제수받아 하강하여 이전에 자신을 겁탈하려다가 살해당한 정수남이(목축신)도 회생시키고서 제주도의 무신(巫神)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서술한 신화로 창조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양산백전은 양축설화의 결말부분을 재생으로 반전시켜 <적강-시련-이별-죽음-회생-결합-향복-승천>³⁵⁾의 구조로 된 적강소설로 창작되어, “자유·의지에 따는 지순한 사랑이야말로 생명과도 바

31)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2, 42~43쪽 참조.

32) 정규복, 앞의 책, 212쪽의 각주(17) 참조.

33) 서대석,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판악어문연구』제3집(재판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242쪽.

34)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96쪽 참조.

35) 성현경, 앞의 책, 110쪽 도표 참조.

끝 수 있는 절대적이고도 지고한 것이라는 사실³⁶⁾을 나타냈다. 그리고, 세경본풀이는 제주도에 전승하는 무속신화(서사무가)들, 이를테면 천신이 하강하였다가 승천하는 천주왕본풀이,³⁷⁾ 농경신(여신)과 수렵목축신(남신)의 갈등을 다룬 당신본(堂神本)풀이,³⁸⁾ 여성영웅이 무예를 익혀 전공을 세우는 여성영웅형 군담소설(홍계원전·황운전·이대봉전)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보여주는 신화를 창조하였는데, 이처럼 국조신화와 같은 남신계 천신신화와 대립되는 여신계 천신신화의 창조가 가능했던 것은 “제주도 여인들의 강한 생활력과 독립심에 관련이 있는”³⁹⁾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영향관계의 계보를 추정해보기로 한다.

먼저 함경도 서사무가의 경우 고전소설 양산백전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 같다. 왜냐하면 양산복은 양산백의 와음이고, 추양대·치원대도 축영대의 와음으로 보이며, 여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정체가 탄로되는 시점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문긔의 말미에서 “양산백이야 추양대야 유전에 내려오고 책에 있는 양산백이야”⁴⁰⁾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함경도 무당들이 국문소설 양산백전을 접하고, 양산백과 축영대처럼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고 죽은 처녀 총각의 몽달귀신을 해원시켜 극락세계로 천도시키는 녀긔(망목긔)⁴¹⁾에 수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 한문원전을 해독할 능력이 있는 소설 작가가 양산백전을 창작하

36) 같은 책, 111쪽.

37) 秋葉隆・赤松智城, 『朝鮮巫俗の研究』(상권), 민속원, 1986, 460~466쪽.

38) 유달선, 「제주도 당신본풀이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85~190쪽에서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갈등구조에 대해 경제사회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39) 박경신, 앞의 논문, 299쪽.

40) 임석재·장주근, 앞의 보고서, 147쪽.

41) 무속사령제(巫俗死靈祭)인 망목긔의 절차는 (1) 不淨풀이, (2) 토세긔, (3) 성주긔, (4) 문열이 천수(千手), (5) 청배긔, (6) 앉인긔, (7) 타성풀이, (8) 왕당천수, (9) 신선긔, (10) 대감긔, (11) 화청, (12) 동갑잡기, (13) 도랑축원, (14) 집가재긔, (15) 오기풀이, (16) 산천긔, (17) 문긔, (18) 뜬전풀이, (19) 상시관놀이, (20) 둥이부침, (21) 천더(薦度)긔, (22) 하직천수의 순서로 진행된다. 문긔은 긔거리의 명칭이지만 무가의 제목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고, 이 양산백전의 영향을 입어 황해도 무가가 생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遺傳)에 내려오는”이 양산백·축영대이야기의 구비전승을 가리킨다고 보면, ‘문헌 형태의 양산백전’과는 별도로 ‘이야기 형태로 전승되던 양산백전’이 존재했을 개연성, 아니면 양산백전에서 양산백과 추양대가 죽는 대목까지가 분리되어 다시 독립적인 설화를 파생시켰을 개연성, 아니면 한문해독능력이 있는 사람을 거쳐 양축설화가 구비설화로 전환되었을 개연성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무가의 ‘추양대’가 고전소설의 ‘추양대’와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가는 고전국문소설 양산백전에서 직접 또는 파생설화를 거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음으로 제주도의 자청비설화와 세경본풀이의 경우에는 남녀 주인공들의 이름이 문도령과 자청비로 일치하고, 자청비가 문도령과 목욕을 같이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대목까지는 서사적 전개가 동일하므로 영향관계는 부인할 수 없지만, 선후관계는 단정짓기 어렵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춘향이 원사하는 춘향전설과 춘향이 이몽룡과 결연하는 판소리 춘향가의 관계를 방증으로 삼는다면, 양산백과 축영대의 이야기를 수용하여 남녀 주인공의 이름을 문도령(文道令)⁴²⁾과 자청비(自請妃)⁴³⁾로 개명하여 자청비설화로 개작하였다가 신화적 사고에 의해 기왕의 여러 서사체를 종합하여 세경본풀이라는 독특한 서사 무가를 창조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신화의례인 세경본풀이에 대응되는 연극의례인 세경놀이의 주인공이 문도령과 자청비가 아

42) 문도령이 북두칠성의 하나인 문곡성(文曲星)의 아들로 설정되는 것은 문도령이 글 공부하러 제주도에 내려오기 때문일 것이다.

43) 자청비(自請妃)는 잠진국대감님이 부처님에게 공양미를 바칠 때 1근이 모자라게 바쳐 아들이 아니고 딸로 태어난 사실을 두고서 부모의 뜻과는 무관하게 제 스스로 ‘자청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용준, 앞의 책, 318~319쪽 참조. 자청비는 탄생과 작명 과정에서부터 완벽한 아들(남자)에 비해 모자라는 딸(여자)로 태어났다는 남성중심적 사고에 의해 평하되지만, 남장으로 교육과 이성교제의 기회를 만들면서 그러한 사회적 차별과 문화적 억압구조에 도전하는 여성영웅의 길을 걷게 된다.

년 사실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요진대 양산백전에서 자청비설화가 파생되고, 그것이 확장되면서 세경본풀이를 형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V. 한국문학과 양축설화를 접맥시킨 동인

중국의 양축설화를 수용하여 설화, 서사무가, 고전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개작할 수 있었던 동인을 축영대의 죽음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의 복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사회사적 측면, 민간 신앙과 무속신앙의 측면, 남녀관계의 측면에서 축영대의 죽음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이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치사회사적 측면에서 본 순절(殉節) 내지 순애(殉愛)

양산백과 축영대와 마씨의 삼각관계에서 양산백과 마씨는 축영대를 사이에 두고서 대립하는데, 『고금정사』에서 ‘마씨가 조정에서’ ‘승상 사안에게 청하여’ 축영대를 ‘의부로 봉한’ 사실을 『선실지』에서 양산백의 관직이 은령(鄞令)이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시키면 마씨는 조정의 관료였고, 양산백은 지방의 관료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적 성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생존했던 동진(東晉)시대의 관료계급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오·촉 삼국정립시대가 서진(西晉)에 의해 통일되었으나, 서진은 문벌귀족의 성장에 따른 왕권의 약화, 정권투쟁의 격화로 인한 왕권방어세력의 분열, 화북지방 농경민의 궁핍화와 화남지방으로의 대이동, 화북지방 농경지대에 정착한 비한민족(非漢民族)의 저항, ‘영가(永嘉)의 난’이라 일컬어지는 천하대란에 의해 멸망하고, 동진으로 명맥을 잇게 됨에 따라 남북조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⁴⁴⁾ 남조사(南朝史)는 ‘동진(317~420) → 송(420~479) → 제(479~502) → 양(502~557) → 진(557~589)’의 순서로 왕조가 교체되었다.

44) 松丸道雄 외 지음; 조성을 옮김, 『중국사개설』, 한울아카데미, 1990, 154~161쪽 참조.

그런데 동진은 지역적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강남의 명문 거족의 권익을 추진하는 정책을 씬에 따라 사안(謝安)·사조(謝朓, 464~499)⁴⁵⁾ 같은 사씨나 왕도(王導)·왕희지(王羲之) 같은 왕씨와 같은 문벌귀족들이 득세했다. 그러나 사씨나 왕씨 같은 동진기(東晉期)의 전형적인 명문귀족의 출신이 아니고 '한미(寒微)에서 분기(奮起)한' 유유(劉裕, 356~422)가 선양의 형식을 밟아 송(宋)왕조를 세웠을 때에는 사씨와 왕씨를 억압하고, 가문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고 있던 한족(寒族) 출신의 군인이나 관료, 곧 한인(寒人)들을 발탁하여 통치기반을 굳혔다.⁴⁶⁾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한족 출신의 무장이었던 소도성(蕭道成, 427~482)이 또다시 선양의 형식으로 제(齊)왕조를 일으켰을 때에도 계승되어 한인들을 중용하였으나,⁴⁷⁾ 역시 선양의 형식으로 양(梁)왕조를 연 소연(蕭衍, 464~549)은 귀족억압정책을 변경하고 명문귀족을 다시 채용하여 한인층의 불만을 샀다.⁴⁸⁾

이처럼 남조시대에 있어서는 문벌귀족과 한인층이 정치역학적으로 함수관계를 지녔는데, 이러한 정치사회사적 맥락에서라야 문벌귀족에 속한 사안이 승상이던 동진에서 마씨의 주청에 따라 축영대를 의부(義婦)로 포창한 데 반해서 한족출신이 세운 제왕조의 화제(和帝, 501~502) 때 양산백을 의충(義忠)으로 봉하고 영(郢, 호북성 강릉)에 묘(廟)를 건립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인층에 속했던 양산백이 문벌귀족이었던 마씨에게 축영대를 빼앗기고 상사병에 걸려 죽었을 때 축영대가 양산백에 대한 절의를 지키기 위해 순사(殉死)한 것인데, 문벌귀족이 지배하던 동진에서는 축영대의 순절(殉節)을 부각시켜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한 데 반해서 한인층이 지배세력으로 부상한 제에서는 한인층에 속한 양산백의 원혼을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신격화하여 제사를 지냈음을

45) 사조는 사안의 동생으로 어머니가 송나라 長城公主인 문벌귀족이었는데, 산수시를 많이 지었다.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1990, 199쪽 참조.

46) 송환도용 외 공저, 앞의 책, 106·161·162·189쪽 참조.

47) 같은 책, 192쪽 참조.

48) 같은 책, 193쪽 참조.

알 수 있다.

하여튼 축영대의 죽음에는 양산백을 위한 순절의 의미가 있고, 화남 지방에서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동진에서 축영대의 순절을 이데올로기화하여 문벌귀족과 지방호족들의 충성심을 고취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전소설 양산백전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양산백전은 이른바 적강소설의 유형에 속하므로 ‘양산백-추양대-심 의랑’의 삼각관계에서 심의랑은 양산백과 추양대의 혼사장에 요소로 설정된 인물이고, 양산백은 추양대와의 혼인을 성취하지 못하고 병사하는 시련을 겪음으로써 천상계에서 득죄한 것을 속죄하며, 추양대는 순절함으로써 충효열을 최상의 도덕률로 삼던 조선왕조사회에서 목숨을 바쳐 ‘열(烈)’을 실천한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적강소설의 유형 구조인 ‘천상에서의 득죄-적강과 시련-속죄와 승천-천상에의 복귀’가 인간을 옥황상제가 주재하는 질서체계에 동화시키려는 함의를 지녔다고 본다면, 양산백의 득죄와 속죄·추양대의 순절·양산백의 무용담은 모두 옥황상제를 정점으로 하는 천상계(신성계)의 지배체제와 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상계(세속계)의 지배체제를 받쳐주는 의리와 충성의 윤리관을 강조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라는 풀이가 가능한 것이다.⁴⁹⁾

이처럼 중국의 양축설화를 수용하여 적강소설인 양산백전으로 변용시킨 동인은 추양대(축영대)의 순절에서 도덕론적 합의점을 찾았고, 또 그것을 이데올로기화하여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동일했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2. 민간신앙·무속신앙의 측면에서 본 원사와 해원

양축설화에서 양산백의 ‘병사(病死)’는 동양인의 죽음관에 의하면 비명횡사요, 원사(冤死)에 해당한다. 양산백은 병사했기 때문에 ‘조상’이 되지 못하고 원혼이 된 것이다. 더욱이 혼인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49) 성현경, 적강소설연구,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171쪽과 177쪽에서도 적강화소가 조선시대 당대사회를 우의화(寓意化)하고, 또 우의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독자들로부터 환영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작가층과 독자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

몽달귀신이기도 하다.⁵⁰⁾ 추영대가 시집가면서 양산백의 무덤 근처를 지나갈 때 바람과 파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은 바로 양산백의 원혼이 탈을 부린 것이며, 제나라 화제 때 양산백이 영이(靈異)로움을 나타내어 의충(義忠)으로 봉하고 묘를 건립한 것은 양산백의 원혼이 신령성을 발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신격화되고 제사의 대상이 된 것을 가리킨다.

또한 양산백의 무덤에서 순절한 추영대도 원혼관념에서 보면 비명횡사한 원혼이다. 그래서 제주도 자청비설화에서 자청비가 죽으면서 신랑에게 “내 치맛자락은 찢어져 파리가 되게 하세요. 모기나 되게 하세요.”⁵¹⁾ 라고 저주했고, 그 결과 자청비의 찢어진 치맛자락이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이 되었다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한을 품고 죽은 원혼도 원한을 풀어주면, 조상이 되어 사령계(死靈界)에서 조령계(祖靈界)로 가게 되고, 선신(善神)이 되어 사람이 이롭게 하는데, 우리 나라 원혼설화에 나타나는 해원의 방식을 보면 대충 네 가지로 집약된다.⁵²⁾

첫째는 원사하게 만든 장본인을 응징하여 원한을 푸는 방법이다. 아랑전설이 이와 같은 복수형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랑을 살해한 통인을 처형함으로써 아랑이 신원(伸冤)된다.

둘째는 원혼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방법으로 백운동서원의 ‘경’자 바위 전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중종 때 주세붕이 숙수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백운동서원을 지을 때 저항하던 승려들을 묶은 채 못에 빠뜨려 죽인 이후로 유생들이 횡사하는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

50) 일반적으로 원귀, 여귀(厲鬼), 객귀, 몽달귀신, 수비 등과 같은 잡귀와 잠신은 ① 복수의 ‘무리’의 개념, ② 하위신의 개념, ③ 탈이 나는 속성, ④ 장소에 집착하는 속성, ⑤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는 속성, ⑥ 신령성(神靈性)과 같은 속성들을 가진다. 최길성, 『한국인의 조상숭배』, 예전사, 1986, 156~158쪽 참조.

51)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69쪽.

52) 강진옥, 「원혼형 전설 연구」(『구비문학』제5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1)에서는 원혼형 전설을 ①육망궁정형, ②중간형, ③신원형(伸冤型), ④사당숭배형, ⑤원혼의 정당성 회복의지로 구분한 바 있는데, 신원형과 사당숭배형이 해원(解冤)의 방식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는 사실을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퇴계가 알고서 못 가의 바위에 ‘경(敬)’을 새겼더니 더 이상 원귀들의 해코지가 없었다고 한다.⁵³⁾ 승려들에 대한 잔학 행위를 인정하고 당시의 가해자를 대신해서 사죄하고, 비록 유교를 숭상하는 유학자이지만 불교를 숭상하던 승려들에 대해서도 공경심을 포함으로써 수중고혼이 된 승려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맺힌 원한을 풀어준 것이다.

셋째는 신으로 승격시키고, 사회적인 존경을 바치는 방법이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 소청마을에서는 장가도 못 가고 한 평생 머슴살이만 하던 노총각이 죽어서 서낭신이 되어 마을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죽은 이후로 매년 동제를 지내고 10년마다 별신굿을 한다.⁵⁴⁾ 가난하고 비천하고 외로운 신세였기 때문에 마을사람들한테서 천대와 괘시를 받던 머슴이 죽어서 원혼이 되어 마을에 재앙을 내림으로써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공경하고 숭배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넷째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이다. 동해안 해랑당(海娘堂)의 경우 해랑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나무로 남근상을 깎아 바치고,⁵⁵⁾ 하회별신굿에서는 15세 과부나 17세 처녀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신혼의례극을 비밀의식으로 거행했다.⁵⁶⁾

이상에서 소개한 해원방식을 고려할 때 양산백의 무덤 속으로 축영대가 들어간 것은 특히 네 번째 해원방식에 해당한다. 진도의 셋김굿에서 총각귀신과 처녀귀신을 사후결혼시키는 ‘저승혼사굿’을 할 때 “먼저 처녀 망자의 묘를 총각 망자의 묘 옆으로 이장하든가 합장을 하고서”⁵⁷⁾ 그날 밤 총각 망자(亡者)의 집에서 굿을 하는 사례도 양산백과 축영대의 무덤 속 결합이 양산백의 원혼을 해원시키는 행위라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축영대는 원혼이 됨으로써 양산백의 원혼을 해원시키는

53) 유중선,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1971.

54) 박진태, 『민속학 자료의 세 가지 문제』, 역락, 2000, 164~165쪽 참조.

55) 박진태, 『탈놀이의 기원과 구조』, 새문사, 1990, 111~114쪽 참조.

56) 같은 책, 137~142쪽 참조.

57) 최길성, 앞의 책, 184쪽.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원한을 품고 죽은 양산백이 축영대로 하여금 원사하여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길 강요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다.

이처럼 양산백의 죽음에 의한 '원한의 맺힘'에서 축영대의 죽음에 의한 '원한의 풀림'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점에서 양축설화가 원령을 부정(不淨)·악·속박의 차원에서 정(淨)·선·자유의 차원으로 재생시키는 사령제(死靈祭),⁵⁸⁾ 곧 넋굿의 일종인 함경도 망목굿의 문굿에서 가창되는 서사무가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남조기의 동진과 제나라에서 축영대와 양산백의 원혼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전쟁과 정쟁(政爭)으로 원혼이 속출하던 당시에 원혼의 탈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민심수습 차원에서 원혼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원혼의 신령성과 영험성을 정권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남녀관계의 측면에서 본 비극적인 순애(純愛)

양축설화는 기본적으로 남녀결연담으로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이야기이다. 다만 그 사랑이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세계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비극성을 띤다. 두 사람의 관계는 축영대가 남장을 함에 따라 동성간의 우정관계로 출발했지만, 양산백이 축영대가 여자라는 사실을 안 이후로는 이성간의 애정관계로 변환되었다. 그렇지만 부모의 정혼에 의해 축영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양산백은 상사병에 걸려 죽어서 원혼이 되었다. 그러나 살아서는 무력했던 양산백이지만, 원혼이 된 이후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축영대와의 사랑을 저승에서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⁵⁹⁾

그러나 제주도 서사무가 세경본풀이에서는 양축설화에서 죽음 대목

58) 최길성,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0, 274쪽 참조.

59) 양축설화는 가문갈등이 혼사장에 요인이 되어 현세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통해서 내세에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라는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동일하다.

을 빼고 여주인공이 남장하여 남주인공과 동문수학하다가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이별하는 대목까지만 수용하여 여주인공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남주인공과 결혼하여 신으로 좌정하는 '행복한 결말'의 신화를 창조하였다. 전설적인 세계관과 신화적 세계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춘향전설과 판소리 춘향가(또는 고전소설 춘향전)의 관계에서도 보게 되는 바, 춘향전설에서 추박한 외모, 이도령과의 이별, 신임사또의 수청 강요가 원인이 되어 춘향이가 원사하는데, 춘향가는 추박한 외모는 절세의 미모로, 이도령과의 이별은 재회로, 결연의 좌절은 성공으로, 신임사또에 의한 투옥과 수난은 암행어사에 의한 춘향의 석방과 신임사또의 봉고과적으로, 춘향의 원사는 행복한 결말로 전환시켜 춘향전설로 춘향가로 변환시키는 데에는 무속적인 해원 사상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춘향가 또는 춘향전이 춘향의 원혼을 위로하는 기우제나 살풀이굿에서 불러질 수 있었을 것이다.⁶⁰⁾

하여튼 제주도의 비극적인 자청비설화와 행복한 결말의 세경본풀이는 춘향전설과 춘향가(또는 춘향전)의 관계에 대응되면서 남녀결연의 실패담과 성공담으로서 서로 대극적인 위치에 놓이는데, 장르론적 관점에서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VI. 결 론

중국의 양축설화는 남조시대의 정치사회사적·사상사적 맥락에서 양산백과 축영대가 사후결혼한 실화가 전설화한 것인데, 이것이 한국에 전래되어 일차적으로 재생화소의 첨가에 의해 비극적인 종말이 행복한 결말구조로 변환되고, 거기에 적강구조라는 외피가 입혀져 양산백전으로 재창조되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양산백전에서 양산백과 추양대가 죽은 부분까지가 분리되어(또는 파생시킨 설화가) 함경도에서는 넘굿

60) 박진태, 『한국민속극연구』, 새문사, 155~157쪽 참조.

의 무가로, 제주도에서는 해충유래설화와 경사곳의 무가로 변용되었다. 요컨대 양축설화와 양산백전은 직접적인 영향관계이고, 다른 서사문학 작품과는 간접적인 영향관계인 것이다.

그리고 양축설화를 한국서사문학에 접맥시킨 동인은 양축설화의 ① 정치사회적·사상적 맥락, ② 민간신앙적·무속신앙적 맥락, ③ 남녀결연담적 맥락에서 합치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양산백전은 ①②③ 모두 다 공유하는 데 비해 함경도도 무가와 제주도 설화는 ②③만, 제주도 무가는 ③만 일치한다. 고전소설은 세속문학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사상적 맥락의 접합이 용이한 데 반해 무가는 신성문학으로서 초역사성을 띠기 때문에 첫 번째 맥락과는 무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영향관계를 조명하는 비교문학연구는 ‘발신자-매개자-수신자’의 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매개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원천연구(발신자)와 영향연구(수신자)에만 국한시킨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축설화의 형성과 변이 및 배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고, 양축설화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한국서사문학의 갈래적 특징을 부각시켰으며, 양축설화와 한국서사문학이 접맥될 수 있는 요인들을 추정한 것은 연구성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렇지만 문헌자료와 전승자료를 포괄한 양축설화의 각편 수집, 분포와 변이와 전파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양축설화와 전기(傳奇)·잡극·소설과의 관계에 대한 통시적 접근, 현지조사에 의한 구전설화의 채록과 설화 관련 증거물(무덤, 묘우 등)의 보존상태 확인, 구비전승과 민간신앙의 관련양상 구명 등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요 남길 수밖에 없다.

주제어 : 수용, 변용, 동인, 사실관계, 영향관계의 계보, 원혼설화, 해원방식, 사후결혼, 행복한 결말, 전설적 세계관, 신화적 세계관.

참고문헌

- 강진옥, 『원혼형전설연구』, 『구비문학』 제5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1.
-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2.
- 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9.
- 김태준, 『조선소설사』(증보판), 학예사, 1939.
-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1990.
-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 《국어국문학》 제96호, 1986.
- 박성의,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64.
- 박진태, 『탈놀이의 기원과 구조』, 새문사, 1990.
- 박진태, 『한국민속극연구』, 새문사, 1998.
- 박진태, 『민속학 자료의 세 가지 문제』, 역락, 2000.
- 서대석,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관악어문연구》 제3집, 1978.
-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문학 연구》 제8집, 1968.
- 서대석, 「한국신화와 민담의 세계관 연구」, 《국어국문학》 제101호, 1989.
-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 이두현 외,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1990.
- 임석재 · 장주근, 『관북무가집』(조사보고서), 1965.
- 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함경도 무속의 성격-」,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5.
- 장주근,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 정규복, 「양산백전고」, 『한중문학비교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7.
- 조희웅 편, 『고전소설문헌정보』, 집문당, 2000.
-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 최길성, 「무속」,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북도편), 1977.
- 최길성,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0.
-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 예전사, 1986.
- 松丸道雄의 공저; 조성을 옮김, 『중국사개설』, 한울아카데미, 1990.
- 秋葉隆 · 赤松智城, 『朝鮮巫俗の研究』(상권), 민속원, 1986.
- 존 킹 페어뱅크; 중국사연구회 번역, 『신중국사』, 까치, 1996.

Ulrich Weisstein , Comparative Literature and Literary Theory ; 이유영 옮김, 『비교문학론』, 홍성사, 1981.

이 논문은 2001년 12월 31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1월 4일부터 2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2년 1월 25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A Study on the Reception and Transformation of Chinese Yangsanbaek and Chukyungdae Story

Park, Jin-tae

[Abstract]

Yangsanbaek and Chukyungdae story that Chukyungdae threw herself into Yangsanbaek's grave to marry his spirit had been legendized in the East-Chin Dynasty. Then it had influenced the narrative literature (Jachungbee tale), the epic shamanist song(Mun-goot) and the classical novel(The Life of Yansanbaek) of Korean literature directly and indirectly. Yangsanbaek and Chukyungdae story could be accepted and transformed into Korean literature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ree sides: self-immolation for her loyalty, his being put to death on a trumped-up charge and her paying off his old scores, their hopeless love in the real world and achieving love through their death.